

## 소 식

###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 성황리에 끝나쳐

1996년도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가 10월 31일(목) 부터 11월 2일(토) 까지 부산대학교 대강당에서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문화”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곳은 날씨속에도 전국의 도서관인 및 관련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金榮秀 문화체육부장관의



격려사와 尹洙仁 부산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李庸男 한성대 총장의 기조연설과 6명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도서관인윤리선언”(가칭) 제정에 관한 토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 도서관들이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을 우리협회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그 보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으로 기탁되는 성금 운동 방안도 소개되었다.( 관련기사 61쪽)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의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주제 및 발표자

〈기조연설〉

-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주소  
(이용남/한성대학교 총장)

〈주제발표〉

- 제1주제 : 정보매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고영만/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제2주제 : 전자매체와 저작권  
(윤선영/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제3주제 : 도서관에 있어서 '인터넷'란 무엇인가?  
(문성빈/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제4주제 :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의 개념과 그 발전추세  
(최석두/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제5주제 :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현실인식의 중요성  
(이경구/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 과장)
- 제6주제 : 도서관의 정보마인드와 운영주체  
(최정태/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 보임 문제 관련 긴급 회의 열어

---

현행 도서관계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공립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 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월 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 보임을 촉구하는 성명발표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관련 9개 단체 대표(서지학회장, 전국사서협회장, 전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장, 전문대학문헌정보과교육협의회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장, 한국문헌정보학회장, 한국정보관리학회장,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장, 한국도서관협회장)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었다.

이 자리에서 9개 도서관 관련단체의 대표들은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도서관 내부에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반대 및 사서직 관장임명을 촉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情報文化 逆行하는 公共圖書館 말살책략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위의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각 단체별로 범도서관계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15일(금) 다시 열린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에 관한 법령 준수 촉구"문안을 작성하여, 이를 즉각 각 시·도 임용권자에게 발송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동위원회는 '서명서 각 시·도 임용권자에게 송부', '주요 일간지에 성명서 발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유예기간 연기를 위한 법령개정은 절대 반대할 것도 결의하였다.

성명서의 내용과 사서직관장 임용촉구 공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성 명

**情報文化 逆行하는  
公共圖書館 말살책략 즉각 중단하라**

반만년 文化民族의 긍지와 자부심을 傳承하여 21세기 정보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려는 歷史 앞에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公共圖書館 말살책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情報文化 先導하는 公共圖書館의 名稱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도서관이란 정보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公衆의 이용에 奉仕함으로써, 民族文化의 전승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法定 조직체로 현대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국민의 혈맥과 같은 필수기관이다. 한 나라의 도서관의 大宗은 公共圖書館이다. 시 군 면 혹은 동 단위로 가장 중심적 위치에 도서관이 있어 그 지역 정보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이다. 지역 주민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과제와 문화향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곳이며, 그것을 통하여 국민의 福利와 連帶感을 배양시키는 정신문화의 광장과 같은 곳이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문화의 전당인 도서관의 간관을 내리고 文化遺産의 단절을 획책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1963년 “圖書館法”이 제정된 이래 국가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圖書館法 이후 현재의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명문으로 부과하고, 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의 배치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함은 물론 각종 지도와 지원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은 세계적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실정으로 국민 15만명에 도서관이 1개인 꼴로 영국이나 미국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일본 동경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20개 도서관이, 런던은 62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하여 우리의 수도 서울은 겨우 2.7개에 불과하다.

정부(문화체육부)에서도 낙후된 우리의 公共圖書館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公共圖書館 설치·운영 10개년계획 아래 1,000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으로 과감하고 의욕적인 정책수행의 결과 이미 지난 해 24개의 公共圖書館을 건립·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公共圖書館 말살책략은 누구를 위한 만행인가?**

정부와 국회에서도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을 아는 專門 司書職에 맡긴다는 立法 취지 아래

1991년 3월 8일 「圖書館振興法」(법률 제4,352호)을 개정하면서 동법 24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으로 補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어 1991년 4월 8일 제정된 「圖書館振興法施行令」(대통령령 제13,342호) 부칙 제4조에 專門 司書職 補任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專門 司書職 관장 보임에 따른 행정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였던 것이다.

한편 문화체육부와 교육부에서는 현행법을 준수하여 기간내에 전문직으로 관장을 보임하도록 시달할 바 있고, 특히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탈법적 조치를 하지말도록 행정지침을 이미 각 시·도에 시달한 바도 있다.

현행법의 규정과 국가의 의지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公共圖書館의 人事權을 행사하는 일부 지방자치(교육자치)단체장들은 專門 司書職을 관장으로 보임하지 않고 비전문직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간판을 내리고 ‘사회교육관’, ‘교육문화관’ 또는 ‘문화예술사업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脫法的 운영을 획책하고 있어 온 國民과 모든 圖書館人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기관의 명칭은 바꾸지만 도서관 기능은 변함없이 수행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圖書館이 없어졌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도서관은 크든 작든 간에 ‘圖書館’으로서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독립된 專門機關으로 ‘圖書館’이외의 명칭으로 표현될 수 없기에 ‘圖書館’의 종류와 그 정의까지도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圖書館’이라는 ‘名稱’은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법적 기준이며, 동법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서는 「이 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圖書館이라는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그 명칭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의 개념 규정은 입법사항이며, 그 명칭은 법률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이 ‘○○○도서관’이 아닌 기관을 도서관 행정의 기본법인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이 다룰리가 없고, 어떤 기관이 ‘도서관’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명칭이 우선 ‘도서관’이 아니어서는 안된다. 이는 ‘학교’라는 명칭을 갖지 않고도 흡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도 많지만, 그것들은 모두 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닌 것과 같다.

그렇다면 왜 “명칭만 바꿨지 사실은 도서관이다”라는 식의 억지를 강변하면서까지 ‘名稱’을 변경하려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여기에 대하여 “기관운영에 관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등의 本末을 顛倒하는 궁색한 논리는 이를 논외로 하고, 患慮깊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중대한 우려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公共圖書館의 관장을 금년 안에 모두 專門 司書職으로 보임하도록 규정한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の 적용대상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행정직 공무원의 이른바 기득권(관장직)을 유지해 보려는 일련의 탈법적인 책략”인 것이다.

대중화, 표준화의 산업사회에서 專門化, 特性化를 지향하는 情報社會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 專門의 특성을 요구하게 되어 모든 기관이 각기 그 분야의 專門家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법원은 法官이, 병원은 醫師가, 학교는 教師가, 박물관은 史學者가, 각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기관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유독 圖書館만이 비전문가를 館長으로 임용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圖書館이 파괴되는 사회에 무슨 敎育이며 思想, 文化가 성숙할 수 있겠는가? 그저 배고프면 소리지르고 말초신경적인 감각문화만이 지배하는 사회로 악순환될 뿐임에 자명하다. 圖書館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회에, 새로운 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문화의 번성이 있을 수 없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참다운 민주정치가 싹틀수 없음을 자명한 이치이다. 육중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참다운 지식이 바로 형성된 사회에서 똑바로 굴러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民族文化의 創造와 國民啓導에 기여하고 있는 公共圖書館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정당당하게 法에 의거 公共圖書館 발전시책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일부 몰지각한 행정직 공무원의 부당한 자리유지를 위한 알팍한 술책을 단호히 규탄하여 국가의 의지와 法을 신뢰하고 있는 이 나라 모든 國民과 圖書館人의 여망에 부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서지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전국사서협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전문대학문헌정보과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사서직관장 임용촉구 공한

문서번호 : 비대위 96-02

수 신 :                    님

제 목 :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에 관한 법령 준수 촉구

1. 민족문화 창달에 진력하시는            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2. 21세기 정보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보화 사회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미 1991년 3월 8일, 정보의 보고인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을 아는 전문 사서직에 맡긴다는 입법취지 아래 현행법령(도서관 및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 및 부칙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1996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으로써 전문 사서직 관장 보임에 따른 행정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3. 따라서 1997년 1월1일 이후로는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과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님께서 공공도서관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실현하려는 법령의 입법취지와 정부의 정책의지(문화체육부 지침 '96. 6. 5. 박도 86640-266) 구현에 특별히 유념하시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님, 만에 하나라도 현행법의 규정과 국가의 의지에 반하는 위법적인 인사처리의 사례가 야기된다면, 이는 정면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직무유기요 직권남용으로, 전국의 모든 도서관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인사권자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4. 한국도서관계에서는 공공도서관장의 전문직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이 법령의 시행이 우리나라 도서관문화의 세계화는 물론 정보 선진국 대열에 동참을 기약하는 역사적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도협, 「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도서관인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

우리협회는 법령 발효후 7년의 세월이 흘러가도록 방치되고 있는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때 부터 도서관인 스스로가 먼저 성금을 모아 이를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기금”조성의 싹을 틔우고자 전국 도서관인들의 성금운동을 1년여 동안 벌여왔다.

성금의 접수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의 첫 날 부터 현장에 접수 창구를 운영하면서 시작되어, 현재는 접수창구를 협회 사무국으로 옮겨 계속하여 성금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은행계좌번호는 국민은행/088-25-0011-260/한국도서관협회), 그 동안 푼푼이 모인 성금액이 10월 말 현재 16,524,372원이 되었다.

이번에 우리협회에서는 「기금」조성의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또 한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우리 도서관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 “방안”의 요지는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을 국내 도서관이 구입하는 경우 그 보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으로, 동 CD-ROM의 발행·보급사인 서울시스템주식회사가 정부(문화체육부)에 기탁한다는 것으로 그 추진배경과 주요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과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의 주문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안내문

「진흥기금」 조성촉진을 위하여 전국 도서관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국의 도서관가족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작년에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도서관인 스스로의 성금 모으기를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현재 16,524,372원)

이는 정부가 정부의 출연금으로 「기금」의 싹이라도 틔워주기를 기다리다 못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몸부림에 가까운 노력의 하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다시 「기금」조성의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도서관들의 협력 여하에 따라서는 좀 더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한 가지 “방안”(方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잘 검토하시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방안”의 요지: 국역 조선왕조실록CD-ROM(1질: 4장 및 해설서와 이용안내서 포함)을 국내 도서관이 구입하는 경우 그 보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으로, 동 CD-ROM의 발행·보급사인 서울시스템주식회사가 정부(문화체육부)에 기탁함.
2. 추진배경: 위의 방안은 우리 협회와 서울시스템주식회사 간의 정식협약('96. 5. 31)에 의함.
3. 주요절차: “기금”기탁의 대상이 되는 구입 실적으로 파악·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 협회를 통하여 주문되어야 함(소정 양식의 “주문서”이용).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CD-ROM은, 민족문화유산인 고전 국학자료들의 국역을 촉진하여 민족문화를 선양하고 이를 첨단 과학시설에 접목시켜 국학자료의 보존·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가 그 간행사업을 추진, 동 간행위원회가 총괄 조정하고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재)민족문화추진회가 국역자료의 감수를 맡았으며, CD-ROM Title은 서울시스템(주)가 개발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록은 조선조 25대 472년간의 역사서로 한문 원본이 1,893권 888책에 이르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대한 사료로 정치, 문화, 경제, 과학기술, 천문지리, 사회, 군사 등 사회전반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기록한 정사(正史)인 바, 이를 CD-ROM화함으로써 1억 9천만 자의 본문, 기사요지, 원주, 역주 외에 그림과 도표를 모두 수록하고 목차, 분류항목 및 자연어 검색은 물론, 검색결과의 자유로운 복사와 인쇄까지 가능하게 되어 실록 원본의 약점인 이용의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록의 CD-ROM은 정보화시대의 국학분야 도서관자료로서 더할 나위 없는 자료 가치를 지녔다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로서는, 전국의 모든 도서관에서 위의 “방안”에 따라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을 구입 활용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실질적인 선양을 위한 문화체육부의 정책의지에 부응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의 조성이 실효성있게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6. 11.

한국도서관협회장



▶ 주문서 양식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 주문서

도서관명		주문내역 및 가격		
주소	( - )	기본	<input type="checkbox"/> One User	5,500,000원
전화	( ) -	선택* (Network option)	<input type="checkbox"/> 5 User	5,500,000원
F A X	( ) -		<input type="checkbox"/> 10 User	8,800,000원
비고			<input type="checkbox"/> 20 User	11,000,000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문서의 모든 란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주문내역의 해당란에 반드시 v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Network option의 user수는 동시에 이용 가능한 이용자 수를 말하며, Network option의 가격은 One User가격에 더해 추가로 청구됩니다.</li> <li>예를 들면, 5명이 이용자가 동시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CD-ROM을 구입하시고자 하면, One User와 5 User에 각각 v표시를 하여야하며, 가격은 11,000,000원이 됩니다.</li> <li>위의 모든 가격에는 VAT(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입니다.</li> </ul>			
<p>위와 같이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을 주문합니다.</p> <p>199 년 월 일</p> <p>( )도서관장 (인)</p> <p>담당직원 성명: (인)</p> <p>[한국도서관협회 경유] 서울시스템(주) 귀하</p>				
<p>※ 이 주문서는 반드시 <u>한국도서관협회</u>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한국도서관협회 주 소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p> <p>전 화 : (02)535-4868, 595-3753</p> <p>F A X : (02)535-5616</p>				
<p>이 주문서 대로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p> <p>서울시스템(주)사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199. . . . .</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도서관협회장</p>				

도서관전산화세미나 및 KDC 제4관  
Workshop '97년 2월 중 개최 예정

도서관전산화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협회가 매년 개최해 온 도서관전산화세미나가 1997년 2월 중 “도서관과 인터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일간의 일정으로 마련될 계획이며, 올해 발간된 “한국십진분류법(제4판)”을 현장 사서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KDC 제4관 Workshop도 내년 2월 중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관장, 그는 누구인가—심포지움 개최

전국사서협회(회장 김현철)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사공 철)와 도서관운동연구회(회장 이혜연)의 후원으로 12월 12일(목)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에서 공공도서관 관장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논의의 마당으로 ‘공공도서관 관장, 그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발표내용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공공도서관 관장에 대한 이론적 이해  
(김태승/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나는 관장이란 자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김지봉/포천도서관장)
- 나는 이런 관장을 원한다.  
(김선옥/강남도서관 사서)  
(허 선/강서도서관 사서)  
(안춘훈/구로도서관 사서)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세미나 개최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회장 김창근)에서는 회원들의 자질 향상 및 초고속통신망 대두에 따른 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Digital Library와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향상”이라는 주제를 채택하여 11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설악 한화콘도(신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어디까지 왔는가  
(오건택/KIST도서실)
- 국가 추진 전자도서관 시범사업  
(최호남/KAIST정보조사과장)
- Internet 과 CD—Network를 이용한 정보서비스  
(노시경/KAIST정보관리과)
- 한국과학재단의 기능과 전문연구정보센터 육성 전략  
(여무송/KOSEF정보관리과장)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전자도서관 구축 전략  
(김순자/KAERI기술정보실)
- 정보통신분야의 Digital Library구축과 전망  
(정현수/ETRI기술정보센터)
- Internet상의 Virtual Libraries 분석과 활용  
(박준희/KAIST전산학과)
- 도서관과 저작권법  
(정상기/한남대 법학과)
-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보호 시스템

- (윤선영/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Internet Resources검색을 위한 검색엔진 활용  
(박준희/KAIST전산학과)

---

한국정보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개최

---

한국정보관리학회(회장李大榮)에서는 12월 13일(금) 중앙대학교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홍재현/중부대학교 교수)
- 인쇄분류표와 전자분류표의 비교연구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러시아 및 중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정보 관리정책  
(곽동철/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데이터베이스연구회, 1996년도 秋季 튜토리얼(tutorial)

---

한국정보과학회의 데이터베이스연구회(운영위원장 박석)에서는 '96년 11월 28일(목) 과 29일(금) 양일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섬유센터 17층 회의실에서 「디지털 도서관의 설계 및 구축」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동 연구회는 해마다 봄 가을에 1회씩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의 내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도서관의 등장  
(서은경/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 디지털 도서관의 구성요소와 요소기술  
(이상구/서울대학교 전산학과 조교수)
- 디지털 도서관과 WWW기술  
(이상호/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과 운영  
(이종문/LG상남도서관 과장)
- 디지털 도서관 관련 기반 기술과 고급 기술  
(맹성현/충남대학교 전산과 부교수)
- 도서관 전산화와 디지털 도서관  
(유사라/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정보시스템 구축방법 및 사례  
(이준호/한국과학기술원 연구개발정보센터 선임연구원)

---

린넷 사용자 협의회, 창립총회

---

린넷 사용자 협의회(회장 포항공과대학교 무은재기념도서관장)는 지난 7월18일(목)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린넷 사용 34개 기관의 담당자 67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린넷 사용자 협의회(LINNET User's Group, LUG)는 린넷 시스템 운영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기관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으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포항공과대학교 무은재기념도서관장
- 부회장 : 영남대학교 도서관장
- 감 사 :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장  
원광대학교 도서관장

---

저작권문제 관련, 각종 모임 개최

---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발달로 저작물의 멀티미디어화·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요즘 이와 관련, 각종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등이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저작권 세미나 개최

일 자 : 1996년 11월 22일(금)

장 소 : 섬유센타빌딩 17층 회의실  
(서울 강남구 소재)

주 제 : 新 미디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

주제발표 :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이호홍/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디지털자료와 저작권  
(남영준/전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황적인/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각종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실태  
(정진섭/대검찰청 전산관리담당관)

<관련사항 문의 : 867-8057~9>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워크샵 개최

일 자 : 1996년 11월 25일(월)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

주 제 :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주제발표 :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환경 변화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연구실장)

-멀티미디어 시대의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  
(이진우/변호사)

-공익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도 점검  
(이상정/경희대학교 법대 교수)

-기술장치와 저작권관리정보의 문제점 점검  
(임원선/문화체육부 저작권과 서기관)

-권리 구제와 분쟁해결 제도상의 문제점 점검  
(박인환/변호사)

---

동아대학교도서관, 개교50주년 기념  
해외석학초청 특별강연 및 학술강연회 개최

---

동아대학교도서관은 1996년 11월 25일(월) 동아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동아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한 사서직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와 공동으로 해외석학초청 특별강연 및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 내용 및 연사는 다음과 같다.

## 〈특별강연〉

- “Libraries & librarians looking forward to 21 century”

(Michael Gorman/미국 프레스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도서관장)

## 〈학술강연〉

- “실물장서, 아직도 중요한가?”  
(김정근/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윤희운/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국립중앙도서관, 다양한 전시회 개최
 

---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진무)은 11월 7일 부터 11월 20일 까지 도서관 전시실에서 「지도 제작술에서의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도 제작술 관련 자료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1일 부터 30일 까지는 “가계 계승의 역사—족보의 유래와 변천과정”이라는 주제의 족보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동도서관 소장자료와 각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씨별 초간보, 희귀족보, 및 독특한 형태의 족보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

 인사소식
 

---

## ■ 전국사서협회 새 회장에 이용훈 사서 피선

이용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료실 사서는 11월 1일(금)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제6차 전국사서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 작은도서관협의회, 제4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차기 회장 선출

작은도서관협의회는 11월 11일(월) 안양 주민도서관에서 제4회 전국대회를 갖고, 전국우수 작은도서관 24곳을 선정·표창하였으며, 김진수 김포책나눔문고 관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 ■ 한국문헌정보학회 신임회장

權起遠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12월 6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제26차 한국문헌정보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 碧梧 金南碩박사 회갑기념 저작집 봉정식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남석 교수의 회갑기념 저작집(社會敎育과 圖書館) 봉정식이 지난 11월 23일(토) 오후 5시 계명대학교 바우어관에서 마련되었다.

벽오 김남석박사는 지난 30여년간 계명대학교에 봉직하면서 후학 지도에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동대학 총무처장, 기획실장, 도서관장, 사서교육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도서관학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주요 저서로는 「圖說圖書編目」, 「資料目錄學」, 「非圖書資料: 整理의 理論과 實際」 등이 있다.

## ■ 인사이동

서울남산도서관관장/尹榮烈

서울목동도서관관장/辛敏夫  
인천중앙도서관관장/김효순

신입회원

❖ 환영합니다 ❖

<단체회원>

남서울산업대학교도서관('96. 10. 7)  
현대자동차자동차정보센터('96. 10.8)  
해남고등학교도서관('96. 10.11)  
삼성의료원의학정보센터('96. 10.11)  
대우재단자료실('96. 10. 25)  
양구도서관('96. 10.28)  
정선도서관('96. 10.29)  
증평도서관('96. 10.30)  
문경전문대학도서관('96. 11. 1)  
화천도서관('96. 11. 2)  
통계청도서실('96. 10.22)  
경주전문대학도서관('96. 11. 25)  
영동도서관('96. 10. 26)

<개인회원>

• 보통회원  
김성호(공주대학교도서관, '96. 10. 1)  
서한숙(전남교육연수원, '96. 10. 2)  
박은영(한국전기연구소, '96. 10. 8)  
김현정(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연구개발정보센터, '96. 10. 10)  
황선애(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96. 10. 23)  
박정주(보령계약정보자료실, '96. 10. 31)

정옥경(명지전문대학도서관, '96. 10. 1)  
장지숙(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96. 11. 20)  
이순란(삼성경제연구소, '96. 9. 30)  
홍정희(충남대 문헌정보학과, '96. 11. 21)

• 평생회원

문우순(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96. 10. 22)  
김남진(삼성의료원의학정보센터, '96. 10. 28)  
장정남(한국과학기술연구원, '96. 10. 8)  
홍재현(중부대 문헌정보학과, '96. 11. 27)  
배순자(전주대 문헌정보학과, '96. 12. 5)  
김정심(Monash University, '96. 12. 6)

※( )안 일자리는 가입년월일임.

사무국일지

10월 31일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11월 2일  
11월 7일 조원호 사무총장,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세미나 참석  
11월 13일 1996년도 제2차 공공도서관위원회 회의  
11월 14일 사공 철 회장,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세미나 참석  
11월 14일 1996년도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11월 15일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회의  
11월 19일 조원호 사무총장, 한국출판연구소 간담회 참석  
11월 25일 사공 철 회장,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증축기공식 참석

- |  |  |
|--|--|
| <p>11월 30일 「한국십진분류법(KDC) 제4판」 제2쇄<br/>「시스템분석과 설계」(현대정보관리학총서 23권) 초판 제2쇄</p> <p>12월 4일 ·전·신임 회장단 모임<br/>·사공 철 회장 교육부 방문<br/>(김태승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장, 전북지역 문헌정보학과 교수 7명과 함께)</p> <p>12월 6일 한국문헌정보학회 총회에 화환 전달</p> | <p>12월 12일 ·조원호 사무총장, 전국사서협회 심포지움 참석<br/>·사공 철 회장,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회의 참석</p> <p>12월 17일 ·1996년도 제2차 이사회<br/>·1996년도 제2차 도서관인윤리선언문안작성특별위원회 회의</p> <p>12월 20일 분류위원회 회의</p> <p>12월 23일 1996년도 제1차 도서관문화편집위원회 회의</p> |
|--|--|

▶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기탁을 위하여 성금하신 분들  
(’96. 7. 10~’96. 10. 21, 합계 810,000원, 누계 : 16,524,372원)

❖ 고맙습니다 ❖

무명	2만원	이안정(경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1만원
김용원(駿河臺大學 文化情報學部 교수)	5만원	진도은(부산시립구덕도서관)	1만원
서혜란(부산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3만원	최창집(인천서구도서관)	1만원
박길호(서울고척도서관)	3만원	추연익(대전시립도서관)	1만원
오동근(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5만원	홍진표(충북충주시립중앙도서관)	1만원
강구식(충북음성도서관)	1만원	황혁주(강원속초도서관교통분관)	1만원
문동식(충북보은도서관)	1만원	김근배(전남울주도서관)	1만원
박광하(강원춘천중앙도서관죽림분관)	1만원	김근중(충남연기도서관)	1만원
엄갑도(충북중앙도서관)	1만원	김미연(경남남해도서관)	1만원
		김순태(강원문막도서관)	1만원

김영래(강원춘성도서관)	1만원	안후영(충북영동도서관)	1만원
김운동(경북점촌공공도서관)	1만원	오경주(제주송악도서관)	1만원
김익중(충남논산도서관)	1만원	유경원(강원철원도서관)	1만원
김종한(경북봉화공공도서관)	1만원	유동철(경북영덕공공도서관)	1만원
김관석(전남해남공공도서관)	1만원	이기환(충남보령웅천도서관)	1만원
김필진(경북안동학생도서관)	1만원	이상준(충북증원도서관)	1만원
김학현(충북증평도서관)	1만원	이수옥(경북금호공공도서관)	1만원
문진수(충남공주유구도서관)	1만원	이정걸(경북의성공공도서관)	1만원
민난희(경남산청도서관)	1만원	이정어(강원영월도서관)	1만원
민영중(강원평창도서관)	1만원	이종식(강원정선도서관)	1만원
박성표(강원인제도서관)	1만원	이종월(충남금산도서관)	1만원
박순규(충남공주도서관)	1만원	이택균(강원횡성도서관)	1만원
박재명(충남당진도서관)	1만원	장석운(강원홍천도서관)	1만원
박종만(경남양산도서관)	1만원	정계숙(전남금성공공도서관)	1만원
박진성(전남화순공공도서관)	1만원	정봉열(경기광주도서관)	1만원
박홍규(강원양구도서관)	1만원	정태화(충북진천도서관)	1만원
박희열(강원화천도서관)	1만원	조규열(전남별교공공도서관)	1만원
부창규(전남고흥공공도서관)	1만원	조동순(강원동해도서관)	1만원
신현기(충남서산해미도서관)	1만원	최명렬(경북문경공공도서관)	1만원
안혜경(전남곡성공공도서관)	1만원	최봉섭(경북청송공공도서관)	1만원
최숙영(경북고령공공도서관)	1만원	한병진(충남서천도서관)	1만원
최옥규(강원태백도서관)	1만원	한상수(충남서산도서관)	1만원
최월순(강원양양도서관)	1만원	허미도(경남고성도서관)	1만원
최정호(충남천안성환도서관)	1만원	홍기두(충북단양도서관)	1만원
최충식(충남홍성도서관)	1만원	황용문(경남진영도서관)	1만원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도서관인 여러분들의 성금 기탁을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圖書館文化 95년 9·10월호 35p-41p, 11·12월호 29p-32p, 96년 3·4월호 66p-70p 참조)

● 은행계좌번호 : 국민은행 / 088-25-0011-260 / 한국도서관협회

● 상 담 · 문 의 : · 전화 (02)535-4868, 535-4480, 595-3753

· FAX (02)535-5616